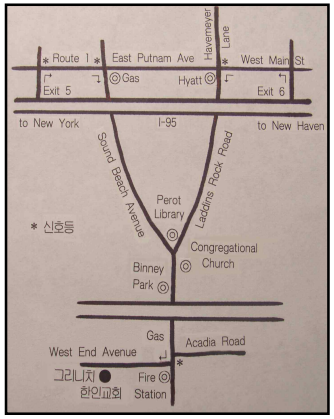
그리니치 한인교회는 커네티컷 남부 그리니치에 자리잡고 있는, 믿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모 임		시 간	장 소	비 고
주일예배	1 부	주일 낮 12시	본 당	말씀 위주로 40분 동안
	2 부	주일 오후 1시	본 당	예배 뒤 점심 및 친교
교회학교	주 일	주일 낮 12:45	교육관	예배 및 성경공부
	주 중	금요 저녁 8시	소예배실	중고등부 리더 훈련
말 씀 과 기 도	말씀나눔	화요 아침 10시	교육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찬양예배	금요 저녁 8시	본 당	찬양, 강해설교, 기도
	기 도 회	토요 아침 6:30	본 당	말씀, 기도, 아침식사



◆ I-95 남쪽에서 오실 때: 1) 커네티컷 Exit 5번으로 나와 램프 끝 신호등에서 우회전 (E. Putnam Ave), 2) 첫 신호에서 우회전 (Sound Beach Ave.) 3) 기차 굴다리를 지난 뒤 첫 신호등에서 우회전 (West End Ave.). 4) 약 200미터 가시면 왼쪽에 교회가 보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of Old Greenwich 건물)

◆ I-95 북쪽에서 오실 때: 1) 커네티컷 Exit 6번으로 나와 램프 끝 신호등에서 직진하고 다음 신호등에서 우회전 (Harvard Ave.), 2) 첫 신호에서 좌회전 (West Main St. Rt. 1) 하고 두 번째 신호에서 좌회전 (Laddins Rock Rd.). 그 뒤는 위의 3) 이후와 같음.

사랑 (LOVE) 그리니치 한인교회 주간소식지 발행인: 담임목사 권수경

GREENWICH KOREAN CHURCH
38 West End Avenue
Old Greenwich, CT 06870
(203) 637-8743 (203) 829-1595
Homepage: www.greenwichchurch.net
Email: koreanchurch@optonline.net

Stamp Here

TO

사랑 LOVE

그리니치 한인교회
GREENWICH KOREAN CHURCH
주간소식지 Weekly Newsletter
제 11권 43호, 2010년 12월 16일

글을 읽으시기 전에 지면을 한 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온라인으로 계속되겠지만 종이로 찍어내는 사랑지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덕분에 지구가 덜 더워질지 또 내 마음도 지구를 따라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라이에서 모이다가 그리니치로 옮겨 그리니치한인교회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랑지도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찍어 만드는 걸 좋아해 이건 아무도 안 도와 주어도 혼자 하리라 생각하고 시작하였는데 예상대로 종간하는 순간까지 제 원맨쇼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몇 해 동안은 만드는 것만 제가 하고 발송 작업은 한 장로님이 맡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교우들이 도와주신 적도 이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드는 일뿐 아니라 보내는 일도 저에게는 뜻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접으며 생각하고 기도하면 제 기도도 소식지와 함께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종이로 가던 사랑이 이제 컴퓨터로 갈 터인데 종이 특유의 포근함은 없겠지만 그래도 컴퓨터가 열을 내는 물건이라 다행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첫 쪽에는 제 칼럼을 실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씩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생각을 갈무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칼럼을 건너뛴 적도 있으니 한 해에 마흔 개쯤 썼다 해도 다 모으면 사백 개가 됩니다! 형편이 허락되면 주제별로 정리해 책으로 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아직 첫 책도 못 낸 형편에 다른 책 계획까지 이미 줄을 길게 서 있어 언제나 기회가 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쪽에는 교회 소식을 담았습니다. 매주 똑같이 이어지는 예배, 친교, 주중 모임이지만 새로운 내용이 있을 때마다 담고 또 매주 달라지는 말씀 내용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가급적 금요일 전에 도착해 주말의 모임과 주일을 준비하게 하는 것도 사랑지의 발행목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지난 해까지는 주일 설교 원고를 따로 종이 두 장에 찍어 사랑지와 함께 발송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홈페이지에 싣기로 하고 요약판만 내다가 홈페이지가 개통되면서 설교는 홈페이지에만 다 실었습니다.

우편으로 받아보는 사랑지가 없으니 한편 아쉬운 구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컴퓨터에 늘 열어놓고 이메일도 자주 확인하면서 종이로 나누던 것보다 더 보드랍고 따끈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온라인 판도 매주 목요일이면 도착합니다. 계속 만들 저를 위해 또 온라인 발송을 위해 수고할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사랑 마지막 호. 이제는 온라인으로

지난 주간 소식

지난 주간에도 찬양예배와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찬양예배**는 많은 찬양에 이어 권 목사님의 대표기도가 있었고 이어 로마서 1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줄 모르는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경멸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는 성경에서 애매한 내용 또는 문화적인 활동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태도이지만 절대 진리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있었고 한국교회가 믿음 강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때문에 오히려 타율적이고 약한 믿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어 함께 기도하고 맥도널드로 옮겨 화기애애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 아침의 **기도회**는 찬송 및 대표기도에 이어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어 살폈습니다. 우리처럼 흠 많은 사람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셨기 때문임을 가르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며 내 책임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이어 여러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맥도널드 아침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와 사귐이 있었습니다. **주일예배**는 찬양팀 인도로 많은 찬양을 먼저 주께 드렸습니다. 이어 권 목사님의 목회기도가 있었고 인사도 나누고 교회 소식도 주고받으며 성도의 사귐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은 다음 권 목사님의 설교 “내 기도의 참 뜻”을 들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어 주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고 헌금을 드린 다음 주 예수의 은혜를 찬송하고 권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귐의 시간에는 양재하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으로 제공하신 귀한 점심을 함께 먹으며 주 안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각 방에서 음식을 먹으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다가 세 시부터 본당에서는 여선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뒤이어 성가대와 찬양팀이 열심히 연습하였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탄 이브 행사를 위한 연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학교 소식

유년부는 이은파 선생님 인도로 창세기 1:1; 에베소서 6:1; 데살로니가전서 5:16-18 말씀을 암송한 후, 장학일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헌금 후에 곽기훈군의 감사기도가 있었고, 이은파 선생님의 인도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정말로', '너무 좋아'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후에 박성민 이은파 두 분 선생님 인도로 분반공부를 하였습니다.

중고등부는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어 장목사님이 창세기 1:26-27 말씀을 가지고 'Why God created us?'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 갈 수 있는지 도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후에는 오정은 선생님과 장학일 목사님 인도로 분반공부를 하였습니다.

부탁말씀: 유년부는 아이들에게 요즘 암송하고 있는 말씀과 찬양 가사를 종이에 적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씀암송과 찬양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번 성탄 이브 행사 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으로 평생에 말씀이 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확인하시고 잘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혹 암송문을 전달 받지 못하신 분은 이은파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1)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복잡해 보이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셨음을 잊지 맙시다.

2) 오는 주일 (19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주 나심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봉투를 미리 나누어 드리지 못했는데 오는 주일 안내석에 준비해 두겠습니다. 성탄 이브 (24일)에는 저녁 8시에 교회에 모여 예배, 연극, 발표 등 축하순서를 갖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준비하시는 맛있는 간식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마지막 주일 (26일)은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올해 마지막 날 (31일) 저녁 8시에는 송구영신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4) 지난 주일 여선교회 총회에서는 이영자 권사님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총무는 오정은 집사님, 서기 및 회계는 박병남 양정화 두 집사님이 나누어 맡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김정아 집사님과 구임원들을 위해 또 새 임원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난 주일 오후 각 사랑방이 곳곳에서 모임을 잘 가졌습니다.

6) 오는 주일 (19일) 오후에는 주일학교 학부모회의 (PTA)가 있습니다.

7) 이번 주에도 금요 **찬양예배**와 토요 **기도회**가 둘 다 모입니다. 열심히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8)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히 이상만 교우님 (천아라 교우님), 박재실 권사님 (박상원 교우님), 김광자 권사님 (지승의 집사님), 이귀애 권사님 (배종순 집사님), 필복덕 권사님 (박석남 집사님), 그리고 심장이식 후 회복 중이신 목정수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